

전통시장 채소상인 적자에 울상

추석 앞두고 폭염에 채소 산지출하량 급감 · 경기침체 · 콜레라 삼중고

추석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통시장 채소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크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비싸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례상 물가 폭등에 따른 경기 침체와 콜레라까지 겹쳐 산지출하량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 신 중앙시장에서 아재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시장을 보러온 손님들이 가격 흥정을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석도 다가 오는데 특수를 누리려는 손님들이 채소값을 아깝게 하고 있다"면서 "도매상에서 받아온 아재 재고가 쌓여 오히

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7일 전주시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추 1포기 소매가는 평균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0여원보다 130%나 올랐다. 특히 최근 한두달 새 가격 변동 폭이 심해 상인들도 놀리는 분위기다. 김치소에 들어가는 무는 개당 3,000~4,000원, 쪽파(1kg)는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많게는 배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산지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석 수요까지 몰려 채소값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채소상인들의 고충은 여전한 모습이다. /신광영기자

채소에 비해 덜하지만 생선 가게 상인들의 고충도 비슷했다. 명절을 앞두고는 항상 전통시장이 북적였지만 최근 타 지역에서 콜레라가 나오면서 손님들도 선뜻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면서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20여년간 생선을 판매했다는 김 모씨는 "체감 경기가 예년 같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10여년만에 발병한 콜레라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들이 나서서 전통시장 애용하기 홍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면서 "많은 손님들이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이 넘쳐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용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광영기자

추석맞아 저소득층에 농·축산물 지원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 농협 김제시지부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대표 허권)와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홍형갑)에서는 관내 농촌지역 저소득층 5가정에 우리 농·축산물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임직원들이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일 1,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평소 지역 농협과 김제시지부 직원들이 지역사랑을 실천하며 알게 된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홍형갑 지부장은 "우리 농촌지역은 노령인구 및 조

손가정이나 독거노인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도움의 손길은 많이 부족하여,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 서겠다"로 말했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전국의 농협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는 단체이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우리 농·축산물 소비 캠페인을 실시하여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계=곽태 기자

하림, 닭 특수부위로 만든 간편안주 2종 이마트 출시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닭발과 모래집 등 닭 특수부위를 사용한 대표 안주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반조리 제품으로 8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림 매콤한 뼈없는 닭발'과 '하림 소금구이 닭 근위'는 고지방 육류 안주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집에서 가볍게 술 한잔을 즐기는 혼술족이나 싱글족에게 안성맞춤이다. 엄선된 국내산 닭고기를 한번 삶아서 잡내를 제거해 비릿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하림 매콤한 뼈없는 닭발'은 먹기 편하게 발달된 닭발에 양념소가 함께 동봉되어 있다. '하림 소금구이 닭 근위'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참깨가루와 소금으로 담백한 맛을 살렸다. 닭 모래집 특유의 쫄깃하고 오독오독한 식감을 뛰어났다. 하림 마케팅팀 정중선 차장은 "이번 신제품은 '혼술(혼자 술 마시기)'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간편 조리만으로 집에서 맛있는 안주를 완성해 가볍게 술 한잔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원기자

전북은행, 혁신도시지점 이전 행사

고객 밀착형 영업 통한 금융 서비스 개선 기대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7일 혁신도시지점 이전 행사를 갖고 새 동지에서 고객들을 맞이한다. 혁신도시지점은 지난 2014년 5월 혁신도시 내 건물 2층에 개점했으나 이번에 이전한 곳은 맞은편 건물 1층으로 기존 위치보다 접근성이 좋아 고객 밀착형 영업을 통한 금융 서비스 개선 및 고객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이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해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 고재욱 전북도 일자리 경제정책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이전 행사를 기념하며

혁신도시 지점 직원과 고객들은 화환과 화분 대신 2014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정, 장애 및 불우 가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급식지원 사업으로 이날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밀착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최현석 셰프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호텔외식학부 교수로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입 등 다수의 공중파 및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N치즈 축제의 홍보대사로 활동이 주목된다.

임실N치즈축제 홍보대사로 최현석 셰프 위촉

임실군은 임실N치즈의 전국적인 브랜드 확장과 치즈푸드의 대중화를 위해 개최되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 홍보대사에 스타셰프 최현석씨를 위촉했다. 7일 열린 위촉식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최현석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김기욱 제전위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위촉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현석 셰프는 "임실N치즈축제 홍보대사 위촉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여기에 "앞으로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축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음식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행복전도시의 밝고 건강한 최현석 셰프의 이미지가 임실N치즈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최현석 셰프를 통해 임실

N치즈와 임실N치즈축제를 다양한 계층에 적극 홍보하고 치즈를 활용한 새로운 대중 먹거리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현석 셰프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호텔외식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 더 테이블 총괄셰프, 버거 프로젝트 등의 화려한 경력과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입 등 다수의 공중파 및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기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논의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7일 전주시 모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공공구매관련 임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MAS계약 2단계경쟁시 약자기업 우대기준 개선 ▲MAS계약시 납품실적 인정기준 완화 ▲졸업앨범 등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입찰 금지 ▲MAS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배점 조정 ▲고시금액(21억)미만 일반물품계약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준용 ▲소기업 공공사 업체품 추천 활성화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성화 요청 등을 전북지방조달청장에게 건의했다. 임중식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나아가 수출을 주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 환경 구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높은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농어촌공군산지사, 영농급수총력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임우순)는 전국적으로 농업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군산지역의 막바지 영농급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지사는 유래없는 폭염과 가뭄상황에서도 현재 군산지역의 평균 저수율은 49.7%이며, 이는 평년대비 73.4%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저수를 하락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우려되는 평년대비 50%미만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저수지 저수율의 면밀한 분석 결과 올 영농 완료시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우순 지사장은 "올 영농기 이후 저수율이 부족한 저수지 가뭄상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근 급강호 수원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수절약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